

조국의 사랑은 따사로워라

지난 4월 재일동포들이 어머니 조국에서 보내준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또다시 받아안았다. 어느덧 167번째, 동서고금에 그 류례가 없는 사랑의 력사가 64돌기의 년륜을 아로새기었다.

그 성스러운 년대기는 해외동포들의 운명과 미래에 대해서도 끝까지 책임지고 보살펴주는 절세위인들의 한없이 뜨거운 민족애와 동포애, 어머니조국의 은혜로움을 온 세상에 소리높이 구가하는 사랑과 충정의 서사시이다.

세상에 없는 예산 항목

오랜 세월 우리 민족이 가슴에 품고 살아온 간절한 소원들중의 하나가 자식들을 공부시켜 남부럽지 않게 내세우는 것이었다.

일제식민지통치의 암담한 시기 이역땅에 끌려가 민족적멸망의 학대, 가난과 무권리속에서 살아오던 재일동포들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였다. 그래서 조국해방후 어려운 형편에서도 한푼두푼 돈을 모아 도처에 학교들을 세웠지만 그 토대는 너무도 빈약하였다. 판자집이라도 자체의 교사를 가지고있는 학교는 몇개 안되었고 대부분의 학교들이 일반학교의 교실들이나 초라한 건물들에서 불편한 결방살이를 하고있었다. 교구비품도 변변한것이 없어 소학교 1학년생이나 앞을 작은 결상에 중학생들이 웅크리고앉아 공부하는 형편이었다. 게다가 조선민족에 대한 차별과 박해, 짐으로 악랄한 동화정책을 국책으로 삼은 일본반동들은 재일동포들의 민족교육에 대한 지원은 고사하고 그를 말살하기 위해 파쇼적관료도 서슴치 않았다. 바로 이것이 1950년대 중엽 총련의 민족교육실태였다.

거처인 이역땅에서 동포들이 겪는 수난, 그중에서도 민족교육이 처한 어려운 실태를 깊이 헤아려보신분은 위대한 김일성주석하시였다.

주제44(1955)년 9월 29일 조국해방 10돐경축 재일조선인총합단 성원들이 아버지수령님을 만나뵈던 때의 일이다. 이날 사신을 헤치고 조국에 온 그들을 따뜻한 동포애의 정으로 맞이하고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신 수령님께서 재일동포들이 이룩한 어려운 형편에서도 자녀들을 믿음직한 애국인재로 키우기 위하여 자체로 대학을 내을 준비를 하고있다고 하는데 아주 강한 일이라고 하시면서 공화국정부는 재일동포들의 민족적진취교육사업을 힘껏 도와줄것이며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주겠다고 하시였다.

순간 축하단성원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아직도 전쟁이 남긴 상처가 깊은 조국의 엄혹한 현실을 직접 목격한 그들이기때문이었다.

전후복구건설로 한층의 자금도 귀하던 때였다. 파괴된 공장들과 농촌들을 복구해야 했고 맨발로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에게 신발도 안겨주고 햇빛같은 교실도 지어주어야 했다.

하지만 아무리 나라살림이 어렵다 해도 이역에서 고생하는 동포자녀들을 위해 꼭 돈을 보내주어야 한다는것이 아버지수령님의 깊은 뜻이었다.

항일전의 나날 간방석어머님에 대한 못 잊을 추억이 어려웠던 귀한 돈으로 햇빛은 마인산아동단원들에게 새옷을 입혀주시던 그 뜨거운 후대사랑으로 아버지수령님께서 그토록 어려운 속에서도 주지없이 용단을 내리신것이였다.

1957년 1월말 평양에서는 국가 예산을 심의하는 내각위원회가 열렸다. 이날 국가예산초안을 보여주시던 아버지수령님께서 제일 관심사신 문제중의 하나는 재일동포자녀들을 위한 교육원조비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재일동포자녀들에게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주시신 60돐기념 재일본조선인중앙대회(2017년 4월, 도교조선문화회관)

와 장학금이였다. 그런데 나라의 재정형편이 너무 긴장하여 일군들은 그 돈을 국가예산에는 반영하지 않고 별도로 임시외화계획에 넣으려 하였다.

이 사실을 아신 아버지수령님께서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기시였다가 아십니다. 보내주어야 합니다. 당장 보내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공장을 한두개 못 짓는 한이 있더라도 이북땅에서 고생하는 동포들에게 아이들을 공부시킬 돈을 보내주어야 합니다라고 단호히 언명하시였다.

...한두번 보내주고 그만둘 일이 아니다. 일본에 우리 동포가 있고 배워야 할 어린이가 있는 이상 계속 보내주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임시적인 사업으로 하여서는 안된다. 국가예산에 새로 《재일동포자녀들을 위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이라는 항목을 새로고 항구적인 사업으로 틀어쥐고 나가야 한다. ...

수령님의 이 간곡한 교시는 장내에 격정의 파도가 일게 하였다. 세상에 없는 예산항목이였고 누구도 상상 못한 일이기때문이었다. 1957년, 그해는 제1차 5개년계획수행이 시작되는 첫해였다. 달성해야 할 방대한 목표에 비해볼 때 자금, 자재, 로력은 엄청나게 모자랐다. 아버지수령님께서 눈보라를 뚫고 강선을 찾으시어 강재를 펴주시었다. 차디찬 방에서 몸아드는 손가락을 입김으로 녹이며 우리 말 교과서를 환런환런 만들던 고원들이, 눈물겨운 돈 한푼한푼을 모아 판자집교사의 지붕이나마 없으며 쓰라린 가슴을 달래던 부모들이 《김일성장군만세!》를 목청껏 웨치였다. 그 환호성은 온 일본땅을 뒤흔들었다.

당시 총련 《조선일보》에는 이런 글이 실리었다.

《지금 일본의 방방곡곡 동포들이 사는 그 어디나 조국에서 보내준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에 대한 화제로 회열과 기쁨이 들끓는 장면에 부딪친다. 돌이 만나나 셋이 없으나 동포가 모인 장

소라면 이 화제로 꽃이 핀다. 시 간이 가는줄 모르고 감격의 말을 주고받는 사이에 모두는 내가 조선공민으로서 무슨 일을 얼마나 하였는가에 대한 자기반성과 함께 앞으로는 가만히 앉아있을수 없다는 결의를 터친다.》

은 동포사랑이 감격과 흥분으로 열려있던 그때 아버지수령님에 대한 재일동포들의 열화와 같은 흠모와 감사의 정을 노래에 담아보려고 모지름을 쓰는 사람이 있었다.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의장 한덕수선생이였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복구건설을 다그치고있는 조국에서 돈을 보내어올줄을 우리 동포들중 과연 누가 꿈결이라도 생각해보았겠는가. 흘러내리는 눈물을 주먹으로 훔치며 한덕수의 장시생은 붓을 달리었다.

나라에서 나라에서 돈을 보낼 줄은 꿈결에도 꿈결에도 생각을 못했지요. 교육원조비 장학금의 많고많은 귀한 돈을 바다너머 저 멀리 조국에서 보내왔어요. ...

...가요 《조국의 사랑은 따사로워라》는 이렇게 세상에 태어났다. 은혜로운 사랑의 생명수를 부여주시어 주체적민족교육의 대화원을 펼쳐주시던 아버지수령님께 드리는 이역의 아들딸들의 다함없는 감사의 정이 가사와 선물에 실려있기에 이 노래는 64년이라는 오랜 세월이 흘러간 지금도 사람들의 눈시울을 축축히 적셔주고있는 것이다.

어두운 구름장을 뚫고 비처럼 은혜로운 소생의 빗방울은 재일동포들의 애국열의를 폭발시키고 민족교육의 발전을 힘있게 추동하였다. 기세충천한 동포들은 수령님께서 보내주시 교육원조비로 곳곳에 새 교사를 꾸리고 문화회관, 체육관 들도 번듯하게 일떠세웠다.

저들이 떨치고 조종하던 조선학교들이 놀라운 모습으로 일신되는 광경에 일본반동들은 아연실색하였다.

남을대로 낫고 비쭈던 학교대신 정 사랑의 교육원조비로 건설된 현대적인 학교로 씩씩하게 등교하는 자식들의 환희에 넘친 모습을 보며서 동포들은 《이 세상에 우리 수령님처럼 은정깊고 위대한분은 없으시다.》, 《아버지수령님의 하늘같은 은덕으로 이제는 우리 애들이 학교

를 다니게 되고 내가 살았다.》고 하면서 가슴을 들먹이였다.

나라일을 돌보시는 그 바쁘신 속에서도 아버지수령님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총련의 민족교육을 위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문제가 자리잡고있었다. 공장과 농촌에 대한 끊임없는 현지지도의 길에서도 수령님께서서는 늘 재일동포자녀들을 생각하시며 그들에게 보내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주자고 하려고 생각을 더 늘여야 한다고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간곡히 당부하곤 하시였다.

1974년 재일동포들은 다시금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아버지수령님께서 조 전혜의 두배나 되는 막대한 액수의 돈을 보내주시였다. 바로 그해 2월에 공화국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세금을 없애고 공업상품값을 대폭 낮추는 조치를 취하였다. 남들에게나 상식이였다. 하지만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심한 경제적파괴와 위기가 휩쓸고있는 일본에서 살고있는 동포들의 교육사업을 도와주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런 사랑의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수십년세월 이런 감격적인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수놓아졌다.

그토록 하늘같은 은정을 베풀어주시고도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로부터 다함없는 감사의 인사를 받으실 때면 우리가 응당 하여야 할 일을 하는것인데 무슨 감사인가고 밀박으시며 사실 조국에서 보내주는 돈은 많지 못하다, 교육원조비는 교원들의 로임에도 좀 보태여야 하는것인데 그것은 얼마 되지 않는다고 미안해하곤 하시였다.

노래가사에도 있듯이 재일동포들에게 베풀어주시는 수령님의 은정은 참으로 산이나 바다에 비길수 없이 높고 큰 사랑이였다.

아버지수령님께서 사랑담아, 정을 담아 보내주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 그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였다. 그야말로 생명수였다. 거처인 이역땅에서 민족의 혈통, 애국의 처럼 은정깊고 위대한분은 없으시다.》, 《아버지수령님의 하늘같은 은덕으로 이제는 우리 애들이 학교

를 다니게 되고 내가 살았다.》고 하면서 가슴을 들먹이였다. 나라일을 돌보시는 그 바쁘신 속에서도 아버지수령님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총련의 민족교육을 위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문제가 자리잡고있었다. 공장과 농촌에 대한 끊임없는 현지지도의 길에서도 수령님께서서는 늘 재일동포자녀들을 생각하시며 그들에게 보내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주자고 하려고 생각을 더 늘여야 한다고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간곡히 당부하곤 하시였다.

1974년 재일동포들은 다시금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아버지수령님께서 조 전혜의 두배나 되는 막대한 액수의 돈을 보내주시였다. 바로 그해 2월에 공화국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세금을 없애고 공업상품값을 대폭 낮추는 조치를 취하였다.

남들에게나 상식이였다. 하지만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심한 경제적파괴와 위기가 휩쓸고있는 일본에서 살고있는 동포들의 교육사업을 도와주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런 사랑의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수십년세월 이런 감격적인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수놓아졌다. 그토록 하늘같은 은정을 베풀어주시고도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로부터 다함없는 감사의 인사를 받으실 때면 우리가 응당 하여야 할 일을 하는것인데 무슨 감사인가고 밀박으시며 사실 조국에서 보내주는 돈은 많지 못하다, 교육원조비는 교원들의 로임에도 좀 보태여야 하는것인데 그것은 얼마 되지 않는다고 미안해하곤 하시였다.

노래가사에도 있듯이 재일동포들에게 베풀어주시는 수령님의 은정은 참으로 산이나 바다에 비길수 없이 높고 큰 사랑이였다.

아버지수령님께서 사랑담아, 정을 담아 보내주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 그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였다. 그야말로 생명수였다. 거처인 이역땅에서 민족의 혈통, 애국의 처럼 은정깊고 위대한분은 없으시다.》, 《아버지수령님의 하늘같은 은덕으로 이제는 우리 애들이 학교

를 다니게 되고 내가 살았다.》고 하면서 가슴을 들먹이였다. 나라일을 돌보시는 그 바쁘신 속에서도 아버지수령님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총련의 민족교육을 위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문제가 자리잡고있었다. 공장과 농촌에 대한 끊임없는 현지지도의 길에서도 수령님께서서는 늘 재일동포자녀들을 생각하시며 그들에게 보내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주자고 하려고 생각을 더 늘여야 한다고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간곡히 당부하곤 하시였다.

1974년 재일동포들은 다시금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아버지수령님께서 조 전혜의 두배나 되는 막대한 액수의 돈을 보내주시였다. 바로 그해 2월에 공화국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세금을 없애고 공업상품값을 대폭 낮추는 조치를 취하였다.

남들에게나 상식이였다. 하지만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심한 경제적파괴와 위기가 휩쓸고있는 일본에서 살고있는 동포들의 교육사업을 도와주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런 사랑의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수십년세월 이런 감격적인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수놓아졌다. 그토록 하늘같은 은정을 베풀어주시고도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로부터 다함없는 감사의 인사를 받으실 때면 우리가 응당 하여야 할 일을 하는것인데 무슨 감사인가고 밀박으시며 사실 조국에서 보내주는 돈은 많지 못하다, 교육원조비는 교원들의 로임에도 좀 보태여야 하는것인데 그것은 얼마 되지 않는다고 미안해하곤 하시였다.

노래가사에도 있듯이 재일동포들에게 베풀어주시는 수령님의 은정은 참으로 산이나 바다에 비길수 없이 높고 큰 사랑이였다.

아버지수령님께서 사랑담아, 정을 담아 보내주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 그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였다. 그야말로 생명수였다. 거처인 이역땅에서 민족의 혈통, 애국의 처럼 은정깊고 위대한분은 없으시다.》, 《아버지수령님의 하늘같은 은덕으로 이제는 우리 애들이 학교

를 다니게 되고 내가 살았다.》고 하면서 가슴을 들먹이였다. 나라일을 돌보시는 그 바쁘신 속에서도 아버지수령님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총련의 민족교육을 위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문제가 자리잡고있었다. 공장과 농촌에 대한 끊임없는 현지지도의 길에서도 수령님께서서는 늘 재일동포자녀들을 생각하시며 그들에게 보내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주자고 하려고 생각을 더 늘여야 한다고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간곡히 당부하곤 하시였다.

1974년 재일동포들은 다시금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아버지수령님께서 조 전혜의 두배나 되는 막대한 액수의 돈을 보내주시였다. 바로 그해 2월에 공화국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세금을 없애고 공업상품값을 대폭 낮추는 조치를 취하였다.

남들에게나 상식이였다. 하지만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심한 경제적파괴와 위기가 휩쓸고있는 일본에서 살고있는 동포들의 교육사업을 도와주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런 사랑의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수십년세월 이런 감격적인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수놓아졌다. 그토록 하늘같은 은정을 베풀어주시고도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로부터 다함없는 감사의 인사를 받으실 때면 우리가 응당 하여야 할 일을 하는것인데 무슨 감사인가고 밀박으시며 사실 조국에서 보내주는 돈은 많지 못하다, 교육원조비는 교원들의 로임에도 좀 보태여야 하는것인데 그것은 얼마 되지 않는다고 미안해하곤 하시였다.

노래가사에도 있듯이 재일동포들에게 베풀어주시는 수령님의 은정은 참으로 산이나 바다에 비길수 없이 높고 큰 사랑이였다.

세워주시 제도와 전통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 기간을 변경시키거나 그 량을 줄이지 말고 수령님께서 계시실 때와 똑같이 보내주어야 한다. ...

그 누구보다도 상심의 아픔이 크신 그이께서 그 가슴터치는 비애의 나날에도 잊지 않고 보내주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받아안은 재일동포들의 심정이 과연 어떠한가.

총련에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는것은 단순한 재정적문제가 아니라 아버지수령님의 유훈을 지키고 수령님께 의리와 도리를 다행히가는 중대한 사업이라는것이 아버지장군님의 드림없는 신념이고 의지였다.

공화국이 재일동포들의 민족교육을 위하여 막대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수십년간 끊임없이 보내주고있는 이 전대미문의 사실은 남조선과 세계인민들에게도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언제인가 총련일군들이 남녘땅을 찾았을 때의 일이다. 그때 남조선인민들이 제일 놀라고 감동을 금치 못할것은 《민단》동포들은 우리 말을 잘하지 못하는데 총련 동포들은 아주 유창하게 하는것이였다. 아버지수령님께서서와 위대한 장군님께서서 해마다 보내주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생생수로 하여 총련의 민주주의적민족교육이 강화발전되고 10여년만에 말하는 동포자녀들이 우리 말과 글을 배웠다는 사실을 전해듣고 그들은 더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한다. 이에 대해 일군들에게 알려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안락에는 환한 미소가 비껴있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용실같은 사랑이 어려있는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받아안으며 어엿하게 성장하여 오늘 조국과 총련에서 애국의 대를 꽃피고 이어가고있는것인가. 이역의 하늘아래에서 총련의 미래를 떠메고나갈 세대들도 마를줄 모르는 그 사랑의 젖줄기를 자랑분으로 하여 역사에จาร과되고있다.

지구상에는 나라도 많고 나라마다 해외교포들을 가지고있지만 공화국의 재일동포들처럼 유취원으로부터 대학까지 정연한 교육체계를 세워놓고 자녀들에게 민족교육을 시키고있는 해외교포들은 없다. 이역만이라도 끝없이 끊이지는 절세위인들의 한없이 숭고한 후대사랑이 이런 경이적인 현실을 펼쳐놓았다.

적대세력들의 군사적위협과 제재봉쇄책동으로 하여 이 땅에서는 어느 하루도 전쟁의 검은구름이 가시여질줄 몰랐고 공화국인민은 언제 한번 허리띠를 풀어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아무리 곤한 나날에도 이역의 아들딸들을 위해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주어야 한다는것이 바로 위대한 수령님의 뜻이였다.

애국애족의 최고 화신이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계시는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의 력사는 지금도 변함없이 흐르고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고귀하고 열렬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높은 뜻을 정히 받들고 이역에서는 새 세대들은 억만금의 금은보화에도 비길수 없는 당과 국가의 귀중한 보배, 희망과 미래의 전부이로 하고 하시면서 그들을 강성조선의 앞날을 떠메고나갈 역군으로 키우시기 위하여 크나큰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다. 경애하는 그이께서 제일로 사랑하시는 그 귀중한 보배들속에는 이역의 학생소년들도 있다.

그이의 뜨거운 사랑이런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은 오늘도 변함없이 이역의 동포들에게 보내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굳건히 지켜주고계시기에 절세위인들의 체취가 뜨겁게 어려있는 민족교육의 대화원은 영원히 만발할것이며 이역의 아들딸들이 부르는 다함없는 감사의 노래, 경모의 노래는 세월의 끝까지 높이높이 울려 퍼질것이다.

...총련에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는 문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민족교육의 대화원에서 자기의 재능을 마음껏 꽃피워가는 재일동포자녀들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위한 역사적로정

폭넓은 민족적대회합을 마련하여

공화국이 걸어온 70여년 역사의 갈피마다에는 민족 최대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위해 기술인 고심어린 노력의 자욱자욱이 려려히 새겨져 있다.

돌이켜보면 공화국은 외세에 의해 나라가 분열된 첫날부터 조국통일을 그 어떤 외세의 간섭도 없이 조선민족 자신의 힘으로 자주적으로, 평화적방법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성의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여왔다.

1945년 8월 15일, 온 겨레는 조국해방의 환희와 격정에 휩싸여있었다.

해방민세의 우렁찬 함성은 삼천리강도를 뒤흔들었다. 그러나 하나의 민족, 하나의 강토를 두동강내려는 외세의 검은손은 조선민족에게서 해방의 기쁨을 여지없이 빼앗았다.

세계제국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외세는 조선반도를 침략의 발판으로, 대륙을 잘라내는 《단검》으로 묘사하면서 우리 나라를 타도하기 위해 수

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일제의 패망이 기정사실화되기 바쁘게 제멋대로 민족분열의 저주로운 38°선을 조작해낸 외세는 《해방자》로 자처하며 괴물은 군화발을 남조선에 들이놓자마자 조선반도의 영유권을 회복하였다.

남조선을 장악한 외세는 조선민족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국제협약들을 반복하게 유린하고 남조선의 애국배족세력을 부추겨 유언의 간관필에 범죄적인 《단선단

선》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남북연석회의의 소집에 대한 제의는 《남북분열 3년의 암울을 헤쳐

나갈 길》이며 《모든 사대주의와 타력의존주의를 박차고 힘있게 전진하려는... 조선인민대중의 거부》라고 썼다.

이 엄혹한 시기 평양에서는 민족분열의 위기를 막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으로서 북과 남의 정당, 사회단체대표들의 연석회의를 소집할 때 대한 방안이 율러나왔다.

연석회의의 소집제안은 북과 남의 애국력량의 단합된 힘으로 외세와 그 추종세력의

한 《반공》민족주의자들까지 참가한 4월남북연석회의는 비록 사상과 리념이 다르고 정견과 신앙에서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 정치세력들과 각계각층이 민족공동의 위업을 위한 투쟁에서 얼마든지 단결할 수 있으며 북과 남이 화합하고 온 민족이 단결하면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능히 이룩할 수 있다는 것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이 회의에 참가한 남조선의 우익정객들도 민족의 대양 김일성장군님께서 계시어 《20세기 새로운 문화정치의 대본영》이 된 평양에서 북과 남의 애국적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통일독립을 진취할 때》를 합의한것은 《우리 독립운동사의 위대한 발전》이라고 하면서 역사적인 남북연석회의가 가지는 거대한 의의에 대하여 긍지높이 강조하였다.

당시 연석회의가 세계적으로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킨 가운데 미국의 한 출판물도 《미국의 남조선단독선거강행정책을 반대하는 조선인민의 투쟁은...1948년 4월 남북조선의 모든 정당, 사회단체대표들이 평양에 모여 연석회의를 개최한것으로 정점을 이루었다. 이 회의에는 리승만, 김성수일파의 3개 단체가 빠져들었던 국우익으로부터 좌익에 이르는 모든 단체가 참가하였다.》고 전하였다.

정당 해방직후의 복잡다단한 정치정세속에서 통일애국의 기치아래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기 위한 역사적인 민족적대회합이 마련되게 된것은 공화국의 조국통일로선과 민족대단결사상의 빛나는 결실이었다.

본사기자 최광혁

와 인민들의 생활감정에 맞게 더욱 발전시킨 공연을 보면서 민족문화예술을 개화발전시키기 위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업적에 대하여 거듭 탄복하였다.

공연무대에는 우아하고 황홀한 전통적인 민속무용들도 올랐다.

이때 무용을 보면서 벌거벗어난 김규식선생이 위대한 수령님께 나직이 말씀하였다. 《우리 나라 곡과 장단에 맞추어 추는 조선춤이 제일 좋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웃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시었다.

《그렇습니다. 조선사람에게는 조선춤이 제일 좋습니다. 노래도 조선춤에 맞추어 부르는것이 더 좋습니다. 우리 나라 곡과 장단에 맞추어 즐겁게 추는 저 춤이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당당 조선사람은 조선장단에 맞추어 춤을 추어야 합니다.》 조선사람은 조선장단에 맞추어 춤을 추어야 한다!

얼마나 의미심장한 말씀인가. 그것은 북과 남의 우리 겨레가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물리치고 자주의 한걸음 걸어나갈 때 비록 험난한 길도 종횡되는 난관이 가로놓인다 해도 반드시 통일업무를 성취할 수 있다는 깊은 뜻이 담겨져 있는 가르침이였다.

그의 말씀에 한성을 반공과 숭미사대로 삼아온 김규식선생은 참으로 많은것을 생각하였다.

그도 그렇것이 그는 청년시절 미국유학을 하고 돌아와서 언더우드라는 미국인의 비서로, 그가 세운 학교교과 교감도 하였다. 이런 언더우드로 하여 해방후에는 외세의 도움으로 독립국가를 세울수 있다는 숭미사대주의에 빠져있었다.

그러하여 조선민족혁명명 명예주석의 자리에서도 사퇴하고 외세가 조작한 남조선민주주의원 부의장, 남조선과도법정의원 의장도 하였다.

그러나 그는 늦게나마 미국의 본심을 꿰뚫어보고 미국에 대한 환상에서 깨어나 남의 장단에 놀아난 자신을 돌이켜 반성하면서 민족자주투쟁을 결심하고 통일애국의 길에 나서게 되었던것이다.

그러나 그는 늦게나마 미국의 본심을 꿰뚫어보고 미국에 대한 환상에서 깨어나 남의 장단에 놀아난 자신을 돌이켜 반성하면서 민족자주투쟁을 결심하고 통일애국의 길에 나서게 되었던것이다.

하기에 그는 위대한 수령님의 말씀을 심장깊이 새겨안으며 이렇게 웅했다. (아무렴, 조선사람은 조선장단에 맞추어 춤을 추어야지! 정말 뜻이 깊은 말씀이야!) 본사기자 황금숙

에 빠져있었다.

그러하여 조선민족혁명명 명예주석의 자리에서도 사퇴하고 외세가 조작한 남조선민주주의원 부의장, 남조선과도법정의원 의장도 하였다.

그러나 그는 늦게나마 미국의 본심을 꿰뚫어보고 미국에 대한 환상에서 깨어나 남의 장단에 놀아난 자신을 돌이켜 반성하면서 민족자주투쟁을 결심하고 통일애국의 길에 나서게 되었던것이다.

하기에 그는 위대한 수령님의 말씀을 심장깊이 새겨안으며 이렇게 웅했다. (아무렴, 조선사람은 조선장단에 맞추어 춤을 추어야지! 정말 뜻이 깊은 말씀이야!) 본사기자 황금숙

에 빠져있었다.

그러하여 조선민족혁명명 명예주석의 자리에서도 사퇴하고 외세가 조작한 남조선민주주의원 부의장, 남조선과도법정의원 의장도 하였다.

그러나 그는 늦게나마 미국의 본심을 꿰뚫어보고 미국에 대한 환상에서 깨어나 남의 장단에 놀아난 자신을 돌이켜 반성하면서 민족자주투쟁을 결심하고 통일애국의 길에 나서게 되었던것이다.

하기에 그는 위대한 수령님의 말씀을 심장깊이 새겨안으며 이렇게 웅했다. (아무렴, 조선사람은 조선장단에 맞추어 춤을 추어야지! 정말 뜻이 깊은 말씀이야!) 본사기자 황금숙

에 빠져있었다.

그러하여 조선민족혁명명 명예주석의 자리에서도 사퇴하고 외세가 조작한 남조선민주주의원 부의장, 남조선과도법정의원 의장도 하였다.

그러나 그는 늦게나마 미국의 본심을 꿰뚫어보고 미국에 대한 환상에서 깨어나 남의 장단에 놀아난 자신을 돌이켜 반성하면서 민족자주투쟁을 결심하고 통일애국의 길에 나서게 되었던것이다.



4월남북연석회의가 진행된 평양의 모란봉극장

창조되는 조국 건설의 신화가

당시 평양시건설부문의 일꾼들과 건설자들은 기본건설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한 아버지 수령님의 강령적인 교시를 높이 받들고 1958년 한해동안에 2만세대의 살림집을 건설할것을 결의해나섰다.

건설자들은 조립식건설방법을 반대해서자신의 책등을 단호히 쳐갈기며 부채생산을 공업화하는데 신차적인 힘을 냈었다. 하여 1958년에 2만여세대의 주택건설에 소요되는 부재가 규격별로 계획보다 한달이나 앞당겨 공급되게 되었다. 이와 함께 건설장들에 대형건설기계가 직접 도입되어 모든 건설작업에서 기계화수준이 전반적으로 훨씬 높아졌다. 건설자들은 조립식속도를 높이기 위한 고속도조립운동을 널리 조직 전개하였다.

부채 한개를 조립하는데 10분이상 걸리던것이 2~3분으로 단축된것도, 미장공 한사람이 한세대의 미장을 하루에 끝내는 혁신이 일어난것도 바로 이때였다. 당시의 신문과 방송들은 평양시건설자들의 헌신적투쟁에 대하여 보도하면서 14~16분동안에 주택이 한세대씩 조립되어 건설속도가 비약적으로 높아지고 로력과 건설자재의 소비가 줄어 훨씬 낮아진데 대하여 널리 소개하였다. 마침내 평양시건설자들은 1958년 한해동안에 7 000세대분의 자재와 자금을 가지고 2만여세대의 살림집을 건설하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이렇게 되어 평양속도라는 이름없는 건설속도가 창조되었으며 이때부터 평양속도는 천리마속도와 함께 공화국에서 사회주의건설의 눈부신 발전속도를 표현하는 대명사로 불리우게 되었다.

그후에도 평양속도는 천리마거리와 창광거리, 문수거리, 광복거리, 통일거리건설을 비롯한 대건설전투장들에서 높이 발휘되었다.

어찌 이뿐이랴.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현명함 정도만에 최근 몇해에 간에 건설된 살림집들과 거리들은 또 얼마나 놀라운 속도로 일떠선것인가.

은하과학자거리와 위성과학자거리, 미래과학자거리와 려명거리... 그야말로 불과 한해사이에 웅건 하나의 새 거리가 일떠서는 기적같은 현실이 펼쳐졌다. 이 놀라운 현실을 두고 세상사람들이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있지만 이것은 조선에서는 맞지 않는 말이다. 10년을 1년으로 주름잡고 아침과 저녁이 다르게 천지개벽하는 조선의 발전속도야말로 신화적이라고 해야 할것이다.》라며 경탄을 금치 못하였다.

인민에 대한 열화같은 사랑과 믿음을 지니신 절세의 위인이 계시고 령도자의 구상과 결심을 가장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 천만군민이 있어 언제나 신화적인 건설속도만이 창조되는 조선이다.

남들이 한걸음 내걸을 때 열걸음, 백걸음으로 내달려 인민의 리상사회를 반드시 안아오자. 이것이 바로 공화국인민들의 드립없는 신념이고 의지로 되고있다.

인민을 위한 1만세대 살림집건설의 발파소리가 세상을 들끓게하는 2021년에 세상사람들은 조선이 또 어떤 놀라운 신화적인 건설속도, 새로운 평양속도를 창조하는가를 보게 될것이다.

어려운 조건에서도 남보다 더 활기차게 달려나가는 평양속도는 영원한 조선의 속도, 조선의 기상이다. 본사기자 박철남

나는 지금 옛것에 걸가에서 만났던 한 할머니를 생각하고있다. 우리가 서로 알게 된것은 불과 2년도 못된다. 그러나 나에게 깊은 인상을 준 잊지 못할 할머니였다. 철쭉이 가가와오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정정해보였다.

한해, 두해 무정한 세월이 없어준 백발이 바람결에 흩날리고있으나 두눈만은 처음 만났을 때처럼 정기가 넘치고 자중에도 기백이 느껴졌다. 기억력 또한 비상했다. 우연히 마주쳤는데도 나를 인차 알아보고는 《기자선생!》 하고 반갑게 불러주었던것이다.

《그때 기자선생이 신문에 내준 수기를 난 매연이다싶이 읽곤 하지요. 이젠 보물이 다 일었다요.》 두해전 나는 그 할머니가 쓴 수기를 편지처럼 《통일신보》에 실어 주었다.

《어디 그뿐이었 아유? 명절날에 온 가족이 모여앉을 때면 손자, 손녀들이 둘러가면서 큰소리로 읽게 하지요. 그럼 돌아가신 아버지생각에 이 가슴이...》

수도의 1만세대 살림집건설장에서 군민건설자들이 건설물의 질보장을 첫차리에 놓고 맡은 대공사장을 계속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령도자의 대건설구상과 결심을 받들어 충성의 돌격전, 치열한 철야전, 과감한 전진작전을 벌이고있는 군민건설자들은 건설물의 질보장에 깨끗한 량심을 바쳐가고있다.

조선인민군 군민건설자들은 말은 살림집들을 오늘날에 이르러 먼 후날에 가서도 손색이 없는 건축물로 일떠세우기 위해 헌신의 자욱을 새기고있다.

이들은 이미 전개되어있는 공크리트혼합장에서 혼합물의 배합을 공법의 요구대로 진행하는데 선차적관심을 돌리고있다. 혼합물에 들어가

는 모래와 자갈, 세멘트뿐 아니라 물량이 이르기까지 과학적으로 계산하고 질적지표가 정확히 보장된 혼합물을 생산하고있다. 한편 휘틀 및 헬근조립 등에서 간직 일본

새를 발취하고 혼합물이 도착하는 즉시 모든 량량을 총동원하여 공크리트압속도를 높이고있다.

특히 초고층살림집건설을 맡은 군민건설자들은 공사속도와 질보장을 다같이 틀어쥐고 매일 뚜렷한 실적을 기록하고있다. 이들은 천년책임, 만년보증의 글발을 언젠가 가슴깊이 간직하고 공

월 상상속에 그려보던 남녘의 오빠, 언니와도 감격적인 상봉을 하게 되리라.》 나는 저도 모르게 울컥 치밀어오르는 심정을 누착하며 물었다. 《할머니, 아직도 유상오빠와 선미언니를 기다리십니까?》 유상오빠와 선미언니란 70여년전 태을민선생이 공화국의 품에 안길 당시 남녘땅에 남긴 오누이자식이다.

수필 더욱 강렬해지는 열망

《아무렴, 기다리구말구요. 나이 들수록 그리운게 혈육이랴. 살아들이나 있는지, 어떤 뎌 꿈에서도 보인다고요. 어서빨리 통일이 돼서 그들 만나본다면 여한이 없겠수다.》 이것이 어찌 남녘땅에 두고 온 자식들을 늘 잊지 않고 살았다는 태을민선생이나 그의 딸 태지녀서민의 심정이라.

외세가 강요한 민족분열의 년륜은 어언 70여년, 그리도 오랜 세월 퍼를 나는 혈육들이 서로 헤어져 살아왔

을 더욱 강렬해지는 열망

기에, 갈라져 살수 없는 하나의 유기체와 같기에 온 겨레가 통일을 그토록 간절히 바라지는 아니겠는가. 그렇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통일에 대한 열망은 식지 않는다. 세월이 흐를수록 더더욱 뜨겁고 강렬해만지는것이다.

이제 더이상 민족의 분열이 지속되는것을 바라만 볼수는 없다. 온 겨레가 일떠서 민족대단결의 기치아래 나라의 통일을 하루빨리 앞당겨와야 한다.

오늘 우리 겨레의 조국통일업무를 행의 전두에는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계신다. 그이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과 뜻과 념원을 받들어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앞당겨 오기 위하여 헌신의 로고와 심혈을 바쳐가고계신다.

나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이런 말을 남기었다.

《할머니, 온 겨레가 바라는 통일의 날은 꼭 옵니다. 부디 건강하시어 남녘의 가족친척들을 만날 환희의 그날을 기다려주십시오.》

유금주

별에 따르는 시공기준과 공법의 요구를 엄격히 지키며 누가 보진말건 순철한 량심을 바쳐가고있다. 이들은 건설장비들의 가동률을 부단히 높여 생산된 혼합물을 불이 번쩍 나게 라인하면서 날에 날마다 공사성과를 확대하고 있다.

수도건설위원회려던 지휘관들도 질보장이자 공사속도라는것을 건설자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한 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근기있게 내밀고있다. 이와 함께 공정별맞물림을 원민미 하는공식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사전에 대책을 따르세우며 현장지휘를 박력있게 해나가고있다. 또한 수시명령의 능력있는 일꾼들로 점검감독을 조직하고 임부분담을 치밀하게 짜고들어 공정검사체계를 확고히 세워나가고있다.

지휘부와 각 시공단위에서는 점검사를 맡은 성원들이 건설물의 질보장에서 자기 역할을 다하도록 하고있다. 매일 총화와 대책을 따르세워 건설물의 질을 철저히 보장하도록 하고있다.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광주의 정신을 우롱하는 파렴치한들

얼마전 남조선의 광주에서 1980년 광주인민봉기 41년 되는 것을 계기로 기념행사가 진행되었다. 문제는 이날에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세력들이 저저마다 광주에 기여하였고 여러 통로를 통해 《광주의정신》을 운운한 것이다. 《광주의정신을 이어 민주주의를 더 발전시키겠다》, 《5.18민주화운동의 중국적파제는 통합과 화해이다》, 《5월정신을 되새겨 무너져버린 민주주의정신을 지켜나가겠다》, 《4년간 민주주의가치가 훼손된데 분노한다》... 남조선보수세력의 이러한 망발은 5.18민주화정신에 대한 모독이며 정의와 진리,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민심에 대한 참을수 없는 우롱이 아닐수 없다. 지난 수십년간 남조선에서

1980년 광주인민봉기뿐 아니라 1960년대의 4.19인민봉기, 1979년 부마항쟁, 1987년 6월 인민항쟁 등 파쇼독재를 반대하고 사회의 민주화를 위한 인민들의 투쟁을 무참히 짓밟아온 것은 과연 누구들이었는가. 다름아닌 《국민의힘》의 조상들이다. 광주인민봉기는 《독도들의 란동》이라느니, 장갑차로 진압한 전두환군사장관은 《영웅》이라느니 하고 떠벌인자들, 광주영령들의 유가족들을 《피로집단》이라고 모독한자들도 지금 《국민의힘》에 등지를 들고있다. 그런자들이 뻔뻔스럽게 광주에 얼굴을 들이민것 자체가 남조선인민들이 분노할 일이 아닐수 없는 것이다. 보수세력들이 《지난 4년간 민주주의가 후퇴되었다》

고 떠들고있지만 실지 민주화의 진전을 가로막은 것도 다름아닌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세력들이다. 그들이 사회진보와 민주화를 위한 검찰개혁에 한사코 제동을 걸었고 《5.18특별법》 제정 등을 시야비아하면서 원세개를 끈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지난 4년간 당국이 하는 모든 일을 사사건건 제방만 놓아온 보수세력의 속심에는 오직 《정권》탈환, 독재부활 밖에 없는 것이다. 보는바와 같이 광주를 《피의 목욕탕》으로 만든 죄악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반성도 없고 사회의 진보와 민주주의를 바라는 초월민심의 지향까지 가로막은자들이 《민주주의의 후퇴》, 《훼손》을 운운하는것은 말그대로 도적이 매를 드는 격이라

해야 할 것이다. 보수세력의 호남행, 그것은 앞에서 《민주》를 떠벌이며 민심을 얻어가지고 뒤 돌아앉아서는 저들의 더러운 권력야망을 실현하려는 비렬한 총책이고 가련한 몸부림에 지나지 않는다. 하기에 그 낮간지러운 추태에 대해 《자신들이 저지른 과거를, 그 잔인한 행위에 대해 사과나 반성을 하는 것이 진심이 아니고 표를 얻기 위한 교연형색(아첨의 말과 알랑거리는 태도)이다》고 평하는것이 남조선민심인 것이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세력들이 아무리 오그랑수를 써도 남조선인민들은 파쇼독군들의 후예들이며 민주주의의 본당에 대해 이미 판결을 내렸다. 본사기자 김 광 역

《검찰개혁을 어설피게 추진한다면...》

남조선에서 검찰이 《국민의힘》과 야합하여 당국의 검찰개혁에 대한 반발과 보복성경계행동을 로보화하고 있다고 한다. 얼마전 남조선검찰패들은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출국금지사건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검찰개혁추진》의 책임자》로 평가받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을 불구속하고 법원에 기소하며 관련된 수사부위를 《정권》에로 확대하겠다고 떠들었다고 한다. 이와 함께 새로 지명된 검찰총장이 《친정권검사》, 《정권》보호에 급급하는 《방탄총장》이 될지언정 《국회》법제사법위원회장을 노리는 《국민의힘》것들과 작당하여 임명을 결사반대하고있다고 한다. 또한 울산시장선거개입사건이 현 《정권》의 고위인물들이 가담한 《증대범죄》

라고 여론화하면서 《부패정권》, 《범죄정권》으로 몰아붙이고있다고 한다. 검찰것들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남조선인민들은 검찰개혁을 줄기차게 요구하면서 그 실현을 위하여 완강하게 투쟁해왔다. 그러나 검찰개혁자들은 민심의 정당한 요구를 진면 거부하고 저들의 파멸을 막아보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해왔다. 지난해 7월 《법꾸라지》로 규탄받고있던 전 검찰총장이 자기의 측근이 려두된 《검언유착의혹사건》에 대한 수사권을 약용하여 한사코 방해해나섰으며 올해초에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검정수사권조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자 《국민의힘》과 한목소리로 《검찰대학살》, 《인사포기》, 《망나니행위》와 같은 갖은 비방을 늘어놓으며 량장판을 벌려놓은 사실이 이를 잘 보여주고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이다. 《뉴스》를 비롯한 남조선

신문들은 《《국민의힘》이 불법출국금지사건을 강도높게 비판한것은 검찰개혁에 장애로 될것》, 《검사장직수는 당국에 대한 강력한 견제》, 《개혁인물들의 재판회부는 책임자를 불러올수도》라는 등으로 검찰과 보수세력의 개혁발발봉음의 최종목표는 현 집권당국의 몰락이라고 평해왔다. 그러면서 망치가 가벼우면 못이 솟구친다는 말이 있듯이 지금의 사태는 《당국이 검찰개혁을 어설피게 추진한다면 나중에는 비극적인 결과가 빚어질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있다》고 분석하였다. 남조선에서 검찰개혁완수는 곧 보수적폐청산이며 사회진보와 정의의 발라초월민심의 명령이다. 사회진보와 정의의 위해 《검찰개혁완수》라는 구호를 들고 떨쳐나선 남조선 각계층 시민들의 목소리는 날이 갈수록 더욱 높아질것이다. 배영일



적폐 정당인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하는 남조선인민들

적폐 정당인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하는 남조선인민들

권력을 위해서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상대방을 물어메치는것은 남조선정치판에서 레사코이 불수 있는 현상이다. 특히 보수세력은 권력을 앞에 놓고서는 정치적상대는 물론 저들끼리도 서슴없이 이발을 드러내놓는다. 전당대회를 앞둔 《국민의힘》내부만 들여다보아도 그것을 잘 알수 있다. 지금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국민의힘》에는 당대표선거에 나선 인물이 여럿이 된다고 한다. 그들은 저저마다 자기가 당대표에 적합하다고 하면서 상대방을 누르고 당대표자리

를 따내기 위해 그야말로 피터지는 싸움을 벌리고있다. 조선의원들과 중진의원들사이에서는 《조선당대표론》과 《유능한 대표론》이 팽팽히 맞서고있고 거기에 지역출신을 논하는 《경상도출신론가론》과 《경상도출신론》의 대결도 만만치 않다. 누가 누구를 하는 흠방물렁기는 개싸움속에서 탈당인물인 홍준표까지 끼여들어 《국민의힘》내부가 더욱 수라장이 되고있다고 한다. 그의 부당을 반대하는 세력은 《도로한국당》, 《과거

에로의 회귀》라고 주장하고 반면 중진의원들은 《저렬한 선동정치》, 《치졸한 편가르기》라고 반대파들을 공격하고있다. 가관은 문제의 인물인 홍준표이다. 《국민의힘》의 내부문제에 이래라저래라 훈시를 하고 조선들과 중진들사이의 갈등과 마찰을 적극 부추기다가 자기의 부당을 반대하는 소리가 나오자 그 무슨 《씨구정치》를 운운했다는 것이다. 자기의 부당을 반대하는 인물들을 《씨구》에 비

유하면서 《씨구새끼가 원동지새끼의 새끼인체 행세한다》, 《다 성장하면 그 씨구기는 원동지를 버리고 새로운 동지로 날아가버린다》고 비난했다고 한다. 제가 탈당해서 훌 날아가 버릴 때는 언제인데 이제 와서서는 누굴 보고 《씨구》라는것인지. 이를 두고 《국민의힘》일각에서는 제발 입다물고 가만있으라고 편찬하고 남조선인민들은 《《국민의힘》이 홍준표의 부당문제를 놓고 속병을 앓고있다》고 아주조

제 버릇 개 못 준다

소하고있다. 제 버릇은 개 주지 못한다고 당대표자리를 놓고 당안팎에서 치고받는 《국민의힘》의 패거리싸움은 권력야욕에 환장한자들의 역겨운 추태의 연장일뿐이다. 본사기자 주 광 일

《보수팀》의 경기관과는...

남조선의 《보수팀》에서 다음해에 열리는 《집짓기경기》에 나갈 《대(표)선(수)》 후보선발경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에 대한 전문가의 평을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 기자: 《보수팀》의 우승후보자는 누구일것 같습니까. 전문가: 현재는 홍(준표) 선수가 아닌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라카락할 때 있는것입니다. 혹시 그쪽의 여론만이 아닌지 모르겠고, 그가 팀을 탈퇴한 경력을 보아도 실력보다는 입심이 세니 거기에 먹여들었다는 지도 모르지요. 기자: 황(교안)선수도 괜찮았는데, 요즘에 대양전너에서 혼란까지 하고있다면 어찌... 전문가: 자기 말이겠지요. 원래 그의 별명이 《교

활》이 아닙니까. 그를 응원할 사람들은 거의 없을것입니다. 기자: 류(승민)선수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문가: 안될것입니다. 보수팀의 원로적인 박할범을 탄핵하는데 앞장섰으니 팀의 로장들의 불만이 많습니니다. 기본용원세력들은 더하구요. 더우기 이몸조차 거부감을 가지게 한다는것 같습니다. 《승민》, 백성을 이긴다는 소리로 들리지 않습니까? 기자: 라(경원)선수는? 전문가: 보기에는 기질적으로 약질인것 같지 않지만 전정현을 약질입니다. 하지만 남의 팀을 무력하고 경원시하여 실점만 당하는 라선수만 나오면 저쪽팀에서 환성을 울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선수를 팀에서 대표로 내보내려야 없지요.

기자: 윤(석열)선수가 신진으로 올라왔는데, 그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전문가: 좀 석연치 않은 점이 많습니니다. 어느 누가 《너 팬잖아》 하고 취주니가 일시적봉분으로 출현한것 같은데 그 선수의 《실력》이 어찌까부고하는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어찌보면 야심적이고 또 다르게 보면 일종의 광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기자: 아 참, 안(철수)선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도 꽤 인기있던데. 전문가: 인기만 풍선입니다. 오를만큼 오르고는 터지고말지요. 안선수는 이번 결정적인 순간마다 철수하곤 해서 사람들이 도리머리 것입니다. 지금도 보수팀을 하나로 묶어 사기를 울리겠다고 하지만 저를 추천해달라는 호소갈기도 합니다. 김 정 역

기자: 《보수팀》선수들의 성이 모두 다른것처럼 그들의 능력도 제각각이겠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문가: 그들에게는 다같이 한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 팀의 이름이 《보수》가 아닙니까. 그들이 그 호로 내건 《혁신》, 《혁신》도 《보수》한다는것이 창조가 아닙니다. 그들은 낡은 집을 보수하는데서는 선수가 아닙니다. 그들이 보수하는 집에서는 보나마 이점처럼 《독단》을 세우고 《독주》를 당하고 《독재》만 날릴것입니다. 기자: 아하 그러니 그식이 장식이라는 말이군요. 세상을 지향하는 민심의 감성과는 동떨어진것 같아 《보수팀》후보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김 정 역

전 지역적인 대중적진보련합조직결성을 위한 투쟁

남조선에서 남고 부패한 보수수를 청산하고 새 정치, 새 생활을 실현할것을 바라는 민심의 요구가 높아가고있는 속에 《민중공동행동》이 전 지역적인 대중적진보련합단체를 결성하기 위한 준비사업을 활발히 벌리고있어 각계의 이목을 끌고있다. 지난 5월 12일 남조선의 진보련합단체인 《민중공동행동》은 대표자회의를 열고 조직을 각계각층을 망라하는 대중적진보조직으로 확대개편하기 위한 《전국민중행동》준비위원회를 결성하였다

고 한다. 《전국민중행동》준비위원회에는 《민중공동행동》에 망라되어있던 민주로총,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진보련대》, 민주평등사회의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의 등 30개 단체가 우선 참가하였다고 한다. 《민중공동행동》으로 말하면 박근혜퇴진투쟁에 처음으로 불을 지피고 박근혜탄핵총투쟁을 주도하였던 민중총결투쟁본부의 후신이 라고 한다. 지금까지 이 단체는 《조

봉민중의 봄, 우리가 앞장자!》를 주요투쟁구호로 내세우고있으며 여기에는 민주로총을 비롯한 50여개의 진보운동단체들이 망라되어있다고 한다. 이번 대표자회의에서 《민중공동행동》은 로동자, 농민, 빈민, 청년학생 등의 진보운동단체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 지역단체들을 망라시켜 전 지역적인 조직으로 확대개편하기로 하였다. 《전국민중행동》준비위원회는 앞으로 불평등해소와 로동기본권확대, 《보안법》

폐지, 평화통일 등을 주제로 매달 《민중공동행동의 날》을 개최하고 북남공동선언일념일을 비롯한 주요계기때마다 대중적인 통일투쟁을 전개하며 올해 11월에는 로동자, 농민들의 련합투쟁을 진행하겠다고 예고하였다. 단체는 다음해초에 《전국민중행동》을 정식 결성하기로 결정하였으니 자주성, 《보안법》폐지, 민중의 생존과 정의, 공정과 평화를 향해 변함없이 전진해나갈것을 다짐하였다고 한다. 본사기자

전범기를 미화분식하는 군국주의후예들

최근 일본당국이 일제의 군기였던 《욱일기》를 사용하는것이 정치적선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떠들었다고 한다. 《욱일기》는 《일장기》와 마찬가지로 해를 본받았다고 풍어와 출신, 명절 등 풍속의 의미로 자국민들아 널리 사용되고있다는것이 일본당국의 주장이다. 과거의 죄악을 외면할조하고 전면부정하려는 또 하나의 파렴치한 꾀에 지나지 않는다. 《욱일기》는 1870년부터 일본국군의 군기로 사용되었으므로 일본이 우리 나라와 아시아대륙침략당시 내걸었던것으로 하여 나치스도이탈란드의 기발과 같이 전범기로 락

되고있다. 그에 그치지 않고 일본은 국제체육경기를 비롯한 행사장에서 《욱일기》를 날리는가 하면 인터넷상에도 공공연히 올리고있으며 영화와 만화 등에도 적극적으로, 교묘하게 삽입하여 자국민들과 어린이들에게까지 군국주의정신을 고취시키고있다. 더우기 당국의 목인, 조종하에 일본의 극우단체들은 《욱일기》를 앞세우고 자국내에서 재일조선인들을 차별하고 린치를 가하는 망나니짓도 거리낌없이 감행하고있는 형편이다. 일본이 벌리는 이러한 망동, 망언들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과거 《황군》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나가려는 군국주의

후예들의 정신분열증세를 보여준다. 《욱일기》를 날리며 조선반도와 아시아대륙을 군화발로 밟던 과거의 향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침략의 역사를 재현해보려는 섬나라 정치권정인들의 패권야욕을 실증해준다. 세월의 풍파에 아무리 씻기워도 지워지지 않을 원한의 피가 배어있는 전범기이다. 세기를 이어오며 조선반도와 아시아대륙을 다시 침략하려고 책동해온 범피의 역사로 얼룩진 《욱일기》이다. 그것을 사용하겠다고 파렴치하게 뇌까리는 일본당국자들의 정신상태를 정의와 역사의 눈으로 다시금 진단하고 더더욱 각성해야 할 시점이다. 본사기자 김 혜 성



적폐 정당인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하는 남조선인민들

《금수저》와 《홍수저》, 이것은 남조선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를 특징짓는 대표적인 표현의 하나이다. 특히 남조선청년들의 슬픈 《자화상》이라고 할수 있다. 남조선잡지 《월간중앙》은 세간에 나도는 《수저계급론》에 대해 이렇게 쓴적이 있다. ...2000년대 초만 갓 20대가 된 이들을 기다린 《3포세대》라는 락인이었다. 생활에 쫓겨, 학자금대출상환에 갇혀, 취업난에 시달리며 청춘들이련에,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것, 가정을 꾸리는 통상적인 단계를 인생에서 자발적으로 루락시켰다는 점에서 그들의 현재는 고층아닌 고층으로 읽혀야 한다. 시절은 더욱더 수상해져서 《3포》는 내

《수저계급론》은 《내 노력과 능력이 아니라 부모의 경제적수준이 자녀의 삶을 결정짓고 이것을 뒤집기는 불가능에 가깝다는 슬픈 담론》이라고 한다. 최근에는 《평범한 청년들은 흠수저가 아니라 초미세먼지수저》라고 말한다고 한다. 《흠수저는 수저를 들지라도 하지만 초미세먼지수저는 형체도 없다는 푸념》이라는 것이다. 《금수저》에서 《홍수저》로 계급분화된 사회, 그속에서 자기 스스로를 《홍수저》에서 《초미세먼지수저》라고 절망하는 남조선청년들이다. 황금만능, 권력만능의 《금수저》사회에서 《홍수저》로, 《초미세먼지》로 사라져가것이 남조선청년들의 비참한 삶이다. 본사기자 김 영 준



적폐 정당인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하는 남조선인민들



공장에 넘기는 새 제품을 개발 열의

얼마전 우리는 인민들이 선호하는 새 편직제품들을 많이 생산하고있는 선교 편직공장을 찾았다. 우리를 맞이한 주성미실장은 지금 공장일꾼들과 종업원들의 새 제품개발 열의가 대단하다고 하면서 공화국기를 형상화한 T셔츠와 각종 운동복, 외투, 세라. 내의류들이 전 시된 제품전본으로 안내하였다.

그의 말에 의하면 현재 공장에서 생산되고있는 편직물들은 지난 시기에 비해 제품의 종수와 가지수가 훨씬 늘어났다고 한다. 그 비결은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서 제시된 경공업부문 과업을 관철하기 위해 종업원들이 한사람같이 떨쳐나 노력한 결과라는 것이다.

공장에서는 계절적특성에 맞는 다중화, 다양화, 다색화가 실현된 질 좋은 편직물들을 더 많이 개발생산하는것을 새로운 5개년계획의 중요한 목표로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이고 있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도안실에 들어서니 도안가들이 최신산업기술자료를 참고하면서 새 제품들과 상표들을 창작하기 위한 탐구에 여념이 없었다.

이곳에서는 시대적미감과 편직도에 대한 인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맞게 옷형태를 끊임없이 개선하고 남, 녀셔츠와 운동복 등을 제작하기 위한 연구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하면서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휴식일뿐 아니라 퇴근이후 여가시간에도 여러 새 새단위들을 찾아 어느 제품이 수요가 제일 높은가, 인민들의 평가가 어떠한가를 구체적으로 료해하고 있습니다. 인민들의 수요가 높은 제품들을 많이 개발하는것이 이것이 우리 공장 새 제품개발의 목표로 되고 있습니다.」

이어 우리는 여러 작업현장을 돌아보았다. 직조, 염색, 가공, 재단, 날염공정 그 어디를 돌아보아도 날로 높아가는 인민들의 요구에 맞는 새 제품들을 생산하기 위해 아글라플의 애고있는 이곳 종업원들의 열의를 느낄수 있었다. 공장에서는 계절적특성에



공장에서 새 제품을 개발 열의

웃음이 없는 생활에 대해 생각할수 있을까? 누구나 자기의 생활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기를 바랄것이다.

하기에 사람들은 익살과 기지, 해학으로 생활에 웃음을 더해주는 희극배우들을 사랑하며 존경한다.

그들 가운데는 타고난 만담배우로 불리우는 리순홍선생도 있다.

어느 누구라 할것없이 만담이라고 하면 리순홍을 떠올리고 리순홍하면 웃음이 절로 나올 정도로 그는 공화국인민들의 사랑을 받



는 유명한 만담배우이다. 얼마전 《통일신보》 기자는 중앙에 경제전진대에서 일하는 공훈배우 리순홍선생(63살)을 만났다.

팬대를 총대로 바꾸어주고

리순홍선생에 대한 취재는 참으로 수월하지 않았다. 어느때는 작품창작을 위해 현실속에서 살다싶이 하는지라 만나기가 어려웠고 그 이후에는 여러 단위들의 화술소품들을 보아주고 의견을 주느라 쫓겨할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다.

한주일만이나 어느 한 예술극장에서 리순홍선생에 대한 취재를 할수 있었다.

그리 크지 않은 키에 안경너머로 보이는 익살기넘친 눈빛, 애가릴 때마다 다양하게 변화는 표정이며 손짓, 몸짓... 무대에서 만담을 할 때의 모습이나 평상시의 모습이 전혀 다름바가 없었다.

첫인상은 말그대로 보기만 해도 웃음이 절로 나오는 모습이었다.

「기자동무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나만 보면 그렇게 웃습니다. 내가 모두에게 웃음을 준다든지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나는 내 직업에 제일 사랑합니다.」

「다들 리순홍선생을 두고 타고난 만담배우라고 하는데

《통일신보》가 만난 사람들

타고난 만담배우 리순홍

그의 소박한 재담은 중대병사들의 인기를 끌었고 군부대에 출현전까지 당선되었다.

고난의 행군을 웃음과 함께

공화국이 어려움을 겪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 리순홍선생은 국립회극단으로 소환되게 되었다.

은 나라 인민이 허리띠를 조이며 혹독한 고난을 겪지 않으면 안되었던 그때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웃음을 전문적으로 꽃피우는 국립회극단을 조직해주시고 각 예술단체에서 웃음창조자 기질을 가지고있는 예술인들을 찾아사람처럼 팔라 그곳에 보내주도록 조치를 취해주시셨던 것이다.

「그때 최광호, 함영선, 박천수, 최경희동무들을 비롯하여 재능있는 화술배우들이 국립회극단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여러차례나 우리들이 창조한 화술소품들을 보아주시면서 인민들이 좋아하는가도 물어보시고 잘한다고 칭찬하시었으며 우리 식 웃음창조에서 나오는 많은 문제들도 가르쳐주시었습니다.」

리순홍선생은 은 나라 방방곡곡에 웃음을 싣고다니던 국립회극단시절 자신들도 미처 몰랐던 웃음의 힘, 웃음의 참 의미를 느낄수 있었다고 한다.

또 그 나날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미레를 띠고 관하며 만담을 웃음으로 해쳐나가고있는 공화국인민의 량만과 불굴의 의지도 체험

《통일신보》가 만난 사람들

타고난 만담배우 리순홍

이후 그는 조선인민군의 어린 예술전진대에 소환되어 이때부터 전문적인 화술배우로 성장하게 되었다.

이후 그는 조선인민군의 어린 예술전진대에 소환되어 이때부터 전문적인 화술배우로 성장하게 되었다.

이후 그는 조선인민군의 어린 예술전진대에 소환되어 이때부터 전문적인 화술배우로 성장하게 되었다.

가정에서도 익살군

리순홍선생은 가정에서도 리순홍선생이 지닌 정열은 참으로 대단했다.

새 작품창작에 들어가면 하루에 보통 3시간정도밖에 자지 않는다고 한다.

그에게는 늘쌍 가지고다니는 수첩이 있는데 현실속에 들어가 사람들이 나누는 대화나 행동에서 창작소재를 잡으면 그 자리에서 꺼내놓고 써내는 수첩이다. 그런 수첩이 수십여권이 된다고 한다.

동료들은 그를 가리켜 《독학가》, 《정열가》라고 부른다. 문학작품은 물론 정치, 경제, 군사, 세계유모에 이르기까지 그가 읽는 책의 주제는 실로 다양하고 그 분량도 방대하다.

그의 나이도 이제는 예순 넘기되었다.

그러나 그의 가슴속에는 언제나 마를줄 모르는 젊음의 원천이 있다.

그것은 지난 시기 여러차례나 그의 만담작품을 보아주시면서 안겨주시 위대한 장군님과



작품창작에 열중하는 리순홍배우

활발히 진행되는 재자원화사업

지금 공화국에서는 자립, 자력의 기치를 높이 들고 생산과 건설을 다그치는것과 함께 설비, 자재와 원료의 국산화, 재자원화를 중요한 정책적과업으로 내세운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의 사상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이 힘차게 벌어지고있다.

재자원화는 물질적부 생산과정에 나오는 폐기물, 폐설비과

사람들의 생활과정에 나오는 오물들을 여러가지 방법으로 가공처리하여 새로운 생산자원으로 리용하는것을 말한다.

재자원화를 실현하면 보다 적은 자금과 자재, 로력으로 더 많은 물질적부를 창조할수 있으며 나라의 자원을 절약하면서도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할수 있다.

희천제사공장에서

희천제사공장에서 국산화와 재자원화를 발전동력으로 이루어지고 생산에서 성과로 이어지고있다.

공장의 기술집단은 자체의 힘으로 각종 설비부속품을 생산보장함으로써 국산화 비중을 높였다.

3대혁명소조원들과 기술자들은 련관단위들과 긴밀한 련계밑에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기술혁신안, 작업방법을 널리 받아들여 설비들의 만가동, 만부하를 보장하고있다.

강원도 원산시안의 경공업공장들에서

강원도 원산시안의 경공업 공장들에서 원료, 자재의 국산화, 재자원화로 생산활성화를 적극 추동하고있다.

원산구두공장 일꾼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지방에 흔한 원료와 자재로 인민들이 선호하는 다양한 제품들을 생산하고있다.

지방공업공장들과의 련계와 협동을 강화하여 필요한 자재를 해결하고있는 공

면을 전부 회수리용하고있다.

원산염에군인수지일용품공장에서도 유류재수집체계를 정연하게 세워놓고 많은 량의 원료를 확보하여 인민 소비품생산을 다그치고있으며 송도원종합식료공장에서 지방의 원료원천을 적극 리용하여 인민들의 호평을 받는 여러가지 제품을 생산하면서 식료공부산물로 비누를 생산하는 공정도 꾸려놓아 그 덕을 보고있다.

본사기자

락랑영예군인수지일용품공장에서

락랑영예군인수지일용품공장에서 파비닐, 파수지수집체계를 더욱 정연하게 세우고 새로운 원료원천지를 탐구하는 한편 생산과정에 나오는 부산물들도 모두 회수하여 생산에 리용하도록 하고있다.

공장에서는 자체의 기술력량을 강화하고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여 생산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

제들을 원만히 해결하고있다.

기술집단은 여러 단위 기술자들과 협력하여 수집한 파수지를 재생리용하는데 필요한 원료조건, 원료세척기 등을 제작하고 식료품포장수머니생산에 쓰이는 인쇄잉크를 국산화하였다. 또한 전통기보장치를 자체로 제작하여 생산의 과학적토대를 강화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였다.



락랑영예군인수지일용품공장에서

부녀의 교육현장을 가다

민들레 학습장 (1)

주셨다고 격정에 넘쳐 이야기하였다. 단 한번만이라도 몸가이에서 뵈고싶은 경애하는 그이께서 지나가신 공장이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설레었다.

모든 생산공정들이 자동화, 호름선화된 민들레학습장공장이 현대적으로 일떠선 결과 학습장에 대한 전국적인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게 되었다고 공장지배인은 설명하였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주체104(2015)년 8월 학습장공장건설을 발기하시고 형성안도 지도해주셨을뿐 아니라 공장이름을 친히 《민들레학습장공장》으로 명명해주시고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주시었다고 한다.

공장을 찾으신 그날에는 현대적으로 꾸러진 공장의 전경을 바라보시면서 민들레학습장공장에서 생산한 학습장을 보며 정말 기뻐하셨다. 질 좋은 학습장들을 받아안고 좋아할 우리 아이들과 학생들을 생각해 주시라든가 주고싶은 심정이었는지 그날은 환하게 웃으시었다는 경애하는 그이이다.

지배인은 이같이 이야기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가 만든 질 좋은 학습장들을 우리 아이들과 학생들에게 안겨주는것은 그들의 가슴마다에 우리의것을 소중한

이날 모든 생산공정이 자동화, 호름선화된 현장을 일일이 살펴보시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공장에서 유치원어린이들과 소학교, 초급중학교, 고급중학교, 대학의 학생들을 위한 수십종에 달하는 학습장들을 생산하고 있는데 모두 마음에 든다고, 종이의 질도 좋고 제책도 흠잡을데 없으며 도안도 학생들의 연령심리에 맞게, 과목별특성에 맞게 잘하였다고 말씀하시었다고 한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민들레학습장공장이 맡고있는 임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책을 제때주는 어머니들의 심정을 안고 질 좋은 학습장을 더 많이 생산하여 우리 아이들과 학생들에게 안겨주어야 한다고 강조하시었다고 한다.

재중동모 김영란

민들레 학습장 (1)

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는데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강조하시면서 민들레라는 명칭을 노래 《내 나라의 푸른 하늘》의 가사를 읊으면서 지었다고 뜻있게 말씀하시었습니다.》

노래 《내 나라의 푸른 하늘》은 우리 동료들에게도 잘 알려져있는 노래이다.

민들레 곁에 피는 고향의 언덕에 하얀 연을 띄우며 뉘뉘던 그 시절 ...

애국심은 자기의것을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는데서부터 움터나는 사상감정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자라나는 새세대들이 자기의것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간직하도록 하는것은 노래 그리고 제책도 흠잡을데 없으며 도안도 학생들의 연령심리에 맞게, 과목별특성에 맞게 잘하였다고 말씀하시었다고 한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민들레학습장공장이 맡고있는 임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책을 제때주는 어머니들의 심정을 안고 질 좋은 학습장을 더 많이 생산하여 우리 아이들과 학생들에게 안겨주어야 한다고 강조하시었다고 한다.

재중동모 김영란

가정에서도 익살군

리순홍선생은 가정에서도 리순홍선생이 지닌 정열은 참으로 대단했다.

새 작품창작에 들어가면 하루에 보통 3시간정도밖에 자지 않는다고 한다.

그에게는 늘쌍 가지고다니는 수첩이 있는데 현실속에 들어가 사람들이 나누는 대화나 행동에서 창작소재를 잡으면 그 자리에서 꺼내놓고 써내는 수첩이다. 그런 수첩이 수십여권이 된다고 한다.

동료들은 그를 가리켜 《독학가》, 《정열가》라고 부른다. 문학작품은 물론 정치, 경제, 군사, 세계유모에 이르기까지 그가 읽는 책의 주제는 실로 다양하고 그 분량도 방대하다.

그의 나이도 이제는 예순 넘기되었다.

그러나 그의 가슴속에는 언제나 마를줄 모르는 젊음의 원천이 있다.

그것은 지난 시기 여러차례나 그의 만담작품을 보아주시면서 안겨주시 위대한 장군님과

작품창작에 열중하는 리순홍배우

평양의 특이한 가로수풍경 (6)

랑반을 인겨주는 금잎회화나무들



풍수시련한 보통강반의 영웅거리가 황홀경을 펼쳐 사람들의 마음을 흥겹게 해주고있다. 노란 잎새를 활짝 펼친 가로수들이 거리를 화려하게 장식하고있는것이다. 풍치를 한껏 돋구어주는 이 가로수들은 수종이 좋은 금잎회화나무들이다. 흔히 사람들은 나무잎들이 가을에 노랗게 단풍이 드는것으로 알고있다. 하지만 봄부터 가을까지 특이하게 잎이 노란색을 띠고 나무모양이 폭포수가 흘러내리는것 같이 보기가 좋으며 꽃이 필 때는 향기가 풍기면서 감흥을 불러일으키는 이 나무들은 영웅거리의 자랑이다. 10년전에 영웅거리를 장식하기 위해 수백그루의 이 나무를 확보하여 도로 주변에 심은것이 이제는 제 모양새를 다 갖추고 자기의 자태를 한껏 뽐내고있다. 모란봉구역 원림사업소에서는 이 나무를 퍼치기 위해 양묘장에서 나무모를 계단식으로 자배운다고 한다. 차를 타고가면서 보아도, 비쳐가면서 보아도 나무들사이로 비쳐드는 해살과 함께 반짝거리는 모습이 눈이 부실 정도이다. 황금빛잎새 설레이는 금잎회화나무들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랑반을 더해주고있다. 글 본사기자 리철민 사진 본사기자 동창현

특색건축기술발전을 추동해간다

특색건축물은 건설비용이 많이 들지만 일단 건설하여놓으면 방대한 에너지를 절약하여 큰 실리를 얻을 수 있다. 공화국의 백두산건축연구원에서 특색건축기술에 대한 연구사업을 심화시켜 성과를 거두고있다. 이들은 무엇보다도 특색건축, 지능건축을 창조하기 위해 특색건축기술발전의 학술적토대를 마련하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어왔다. 연구소에서는 세계건축발전의 추세에 맞으면서도 공화국의 실정에 부합되는 특색건축물의 평가기준, 특색건축과 지능건축평가기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확립한데 이어 새로운 평가체계를 세우기 위한 사업을 박력있게 전개해나가고 있다. 이곳 연구집단에서는 나라의 혼한 원료로 친환경적이고 현대적미감이 살아나는 특색건축물을 개발도입하는 사업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다. 그 과정에 색기장재료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켜 현실에 도입하였으며 특색건축개발과 재자원화를 추동하는데 적극 이바지하는 환경보호형의 배움재를 제조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연구자들은 가구와 장식재료, 외장재 등에서 발생하는 인체에 해로운 화학물질의 농도를 측정하고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연구사업에서 성과를 이룩한데 기초하여 그 경험과 방법들을 적극 일반화하고있으며 건축부문에서 마감건재로 널리 사용되는 목재의 부식을 막기 위한 연구도 추진시켜나가고 있다. 이와 함께 실내공기오염을 막기 위한 연구에서도 전진을 이룩하였다. 우리와 만난 조희원연구사는 이렇게 말하였다. 《건축물의 설계에서 기본은 자원과 에너지를 최소화하고 오염발생을

최대한 감소시키며 생태환경을 적극 보호하면서 사람들이 가장 편리하고 건강에 리로운 조건을 보장해주는것입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비단 이 연구원에서만 아니라 공화국의 각지에서 활발히 벌어지고있는 특색건축기술발전사업에 대하여 더 잘 알게 되었다. 특색건축재료인 복합효소 흙경화제만 놓고보아도 건설재료첨가제로써 콘크리트에서 성과를 이룩한데 기초하여 그 경험과 방법들을 적극 일반화하고있으며 건축부문에서 마감건재로 널리 사용되는 목재의 부식을 막기 위한 연구도 추진시켜나가고 있다. 이와 함께 실내공기오염을 막기 위한 연구에서도 전진을 이룩하였다. 우리와 만난 조희원연구사는 이렇게 말하였다. 《건축물의 설계에서 기본은 자원과 에너지를 최소화하고 오염발생을

월발이 벌어지는 민족유산보호관리사업

공화국의 각지 근로자들이 조선로동당의 민족유산보호정책을 받들고 력사유적,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관리사업을 활발히 벌이고있다. 평양시 만경대구역, 대성구역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나라의 귀중한 민족유산이 빛을 뿌리도록 할 예극의 마음을 안고 범오안과 통곡서원, 광범사 등의 지불기와 교재, 추녀보수를 책임적으로 진행하고있다. 함경남도에서는 고원군 랑천사 만세루와 영평군 풍홍사로 가는 도로보수, 지대정리를 짧은 기간에 질적으로 끝냈으며 평안남도 평성시, 평원군, 황해남도 배천군, 남포시 룡강군에서는 안국사, 미두산성, 강사사, 룡강사신무덤을 민족의 우수성을 심어주는 력사유적으로서의 면모를 잘 보여줄수 있게 꾸려놓았다. 라선시에서는 포항재봉수, 승전비각주변에 대한 석비레갈기, 물도랑정리를 하였으며 자강도에서는 강계사, 최현 원명사의 단청을 민족적특성이 살아나게 하였다. 개성시에서도 우리 선조들의 뛰어난 건축술을 보여주는 고려 박물관, 평통사, 승양사원을 력사주의적 원칙에 맞게 보수하기 위한 사업을 계획적으로 내밀어 자기의 모습을 그대로 보존할수 있게 하고있으며 평안북도에서는 풍문대굴, 약산동대를 비롯한 명승지들에 잣나무, 살구나무, 수유나무 등 수종이 좋은 나무를 많이 심어 풍치를 돋구고있다. 함경북도에서도 철

로산 해철보의 참관도로와 석축 및 용벽구공사를 추진하는것과 함께 마양산향로루, 마양원주제비보호구역에 동물들의 서식환경을 보장해 주기 위한 사업도 적극 따라세우고있다. 본사기자



관서8경의 하나인 련광정에서

초음파응용의 핵심기술들을 정복해간다

초음파라고 하면 주파수가 2만Hz이상으로서 사람이 들을수 없는 소리의 일종이며 높은 지향성과 에너지를 밀도 높고 가지고있는것이 특징이다. 현재 세계적으로 볼 때 초음파기술이 응용된 초음파거리계, 초음파현미경, 초음파가공기, 초음파세척기 등 각이한 제품들이 개발되어 여러 분야에 도입되고있다. 김책공업종합대학 물리공학부 음향공학연구소의 연구자들은 이 기술을 리용하여 수입에 의존하던 초음파세척기, 휴대용초음파결합탐지기, 초음파두께측정기, 초음파분산유화장치 등 다양한 제품들을 연구제작하였다. 초음파세척기는 주로 표면이 복잡하거나 깊은 구멍들이 있는 제품, 실험기구 및 수술도구, 귀금속제품 등을 효과적으로 세척하며 그 효과 또한 높다. 휴대용초음파결합탐지기는 각종 주물품들과 용접부위의 기공, 균열 등 내부결함들의 위치와 크기를 비파괴적인 방법으로 검사할수 있으며 초음파두께측정기는 판의 벽과 같이 한면만 드러나있는 제품의 두께를 신속정확히 측정해낸다. 평양화장품공장에서 리용하는 초음파분산유화장치도 이곳 연구자들이 만든것이다. 초음파분산유화장치는 물과 기름과 같이 섞이지 않는 두가지이상의 액체들을 균일하게 유약시킨다. 또한 고체분말원료들을 더 미세하게 분쇄하여 액체속으로 균일하게 분산시키기도 한다. 세계를 앞서나갈 배짱을 안고 초음파응용의 핵심기술

들을 하나하나 정복해나가는 이곳 연구집단의 피라는 노력과 열의가 있어 앞으로 가치있는 더 많은 첨단기술제품들이 개발되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사화

림제와 화전놀이 (3)

글 리빈, 그림 김윤일

《백호선생기전에 마음먹어 뭘 못하시겠소만 부디 삼가해주소. 사대부의 근근이를 잊고 그 근근이대고 양노부리가 일주라고, 랑반신분에 기생의 죽음을 슬퍼해서 랑반들을 모독했다고 선생을 눈에서 가시처럼 여기는 랑반이 뭐 강사문이 하나뿐인줄 아오?》 하며 백정은 못내 불안을 감추지 못하였다. 만발한 진달래로 한벌 덮인 풀안은 피그나 넓었는데 안복판으로는 시내물이 구불구불하였다. 바다가 번듯한 원편에는 아전이며 하인들과 기생, 악공들을 데리고 올라온 군수이하 고을랑반들이 자리를 잡고는 개울 건너 오른편으로 얼마간 치치여서는 농군들의 터였다. 이곳 고을에서는 해마다 정해놓고 여기에서 랑반유지들과 농군들이 개울을 사이두고 화전놀이를 펴군 하였다. 강사문을 위시한 랑반들은 화전놀이의 첫 공적인 시내물에 밧짓기인 탁족에 달

라붙었다. 이들은 저마끔 마음에 드는 돌우에 영영이를 붙이고 버선을 벗어 옆에 놓고나서 활활 홀러내리는 시내물에 발을 잠그었다. 개울 건너에서도 구름처럼 모여든 농군들이 무릎우까지 바지가 맵시를 훌쩍 건어올리고 다투듯 물에 뛰어들었다. 림제가 백정과 함께 나타났을 때 강사문은 그를 슬그머니 피하는 눈치였고 다른 랑반들도 거의나 본체만체하였다. 원배루터 성적이 자유분방하고 정의감이 강한데다가 능란한 익살로 때와 장소에 맞게 랑반관리들을 골잘 조종하는 림제는 랑반자들에게 반박하러 들어왔을 랑반들사이에 끼여들었다. 여기저기에서 《어, 시원하다!》, 《정신이 다 번쩍 드는군.》, 《십년체중이 푹 떨어지겠는걸.》 하는 랑반성이 연방 튀어나왔다. 림제가 날아갈듯 상쾌한 기분으로 《봄명절 화전놀이에 탁족이 없다면 심겁기 짝이 없지. 과연 탁족이 화전의 진미를 넣거니.》라고 감동을 터놓으니 옆에 앉은 랑반자 하나가 얼른 그를 받아서 《그 말씀 명담이요. 밧이야 집에라도 늘 씻기들이

아지.》 림제는 혼연히 받아물며 당장이라도 출을 출듯 벌떡 일어나 물가운데로 들어갔다. 아니, 정말도 물 한복판에서 춤을? 모두의 놀란 눈길이 그에



날씨가 무더운 여름에는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냉방보수를 더 많이 해야 한다. 입맛이 없고 소화기 잘 안되는 여름에는 보리밥, 감주, 메밀국수, 옥수수, 울무죽 등의 전통음식이 좋다. 낮은 기온에서 자라 찬 성질이 있는 보리는 섬유질이 많고 장운동을 활발하게 해주므로 변비에 좋고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는 작용도 한다. 보리는 비장과 위장을 건전하게 하고 음식을 소화시키는 효능도 있으므로 당뇨병환자에게 좋으며 음식에 체하여 배가 묵직한것도 치료한다. 또한 장과 위를 조화롭게

하며 해독작용도 한다. 메밀은 비장의 습기를 제거하고 장을 비우게 하는 효과가 있어 위와 장에 로메물 힘이 빠지고 설사를 자주 할 때에는 울무죽이 좋다. 습기를 제거하는 효력이 커서 몸이 제부등하고 무거운 사람이나 몸이 난 사람들에게 적합하다. 또한 울무죽은 동맥경화와 심장병을 예방해주고 콜레스테롤을 내려주는 작용도 하며 항암효능도 있어 암환자에게 좋으며 피부질환치료에도 좋은 효과가 있다. 본사기자

여름에 좋은 날알음석

목두는 열을 내려주고 갈증을 풀어주는데 특히 여름에 더위를 먹어 갈증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한데 좋다. 또한 장과 위를 조화롭게

역사유물 불꽃뿔음무늬금동관

평양시 대성구역에서 발굴된 불꽃뿔음무늬금동관은 4~5세기의 력사유물이다. 띠모양의 보관테두리 옷줄에 인동무늬를 새기고 밑줄에는 구슬무늬를 새겼으며 그사이에 7개의 나무잎장식을 넣어 일정한 변화를 주었다. 이 테두리에는 활활 타오르는 불길이나 바람에 실려 세차게 날리는 구름과 같은 무늬를 새긴 9개의 가지를 새겼으며 보관 두끝에는 웃고름과 같은 장식을 아래로 늘어뜨렸다. 전반적으로 균형이 잘 잡히고 무늬가 아름다우며 우아로 치솟으며 타오르는 불길무늬에는 고구려 사람들의 진취적인 생활기풍이 그대로 나타나있다. 이 장식품은 그것을 만든 기술이 당시로서는 비상히 높은 수준에 이르렀음을 보여주었다. 보관의 머는 압착가공하여 만들었고 피의 구멍은 고

